

## 發刊辭

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이번 『법학』 제42권 제3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호는 개인적으로는 임기의 마지막에 발간되는 것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. 기초법, 국제거래법, 형법에서 각 1편씩의 논문과 헌법에서 국내논문 2편, 독일논문 1편, 그리고 정치헌금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 총 7개의 글로 구성되었습니다. 바쁘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을 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특히 Dieter Grimm 교수의 논문은 작년부터 시작된 법학지 개방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실리게 된 것입니다.

제42권 제1호에서부터는 우리 『법학』지가 세계적 학술지가 되기 위해 형식면에서 표지도안과 책 크기의 체제를 과감히 바꾸었습니다. 그리고 법학지 개방방침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학지의 편집에 도입하려는 생각의 일환으로 외부인사도 영입하여 편집진용을 새롭게 조직하였습니다.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풍부하고 수준 높은 논문들을 담고 있느냐 하는 점이라 생각합니다. 이러한 면에서 본대학의 교수님들 뿐 아니라 외부인사의 질 높은 논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요청됩니다. 외부인사의 글이 실린다는 것은 그 저변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『법학』지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앞으로 이러한 방침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『법학』지가 국내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 속으로 펼쳐 나아가는 학술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.

2001年 8月 31日

法學研究所長 崔大權